

교회 목표

신약한 예배
천국인문 양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1: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헌 편집국장:이형수

영혼의 갈증

어떤 시인(詩人)이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이 시인(詩人)의 영혼은 깊은 고통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운택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온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는 것입니다(마 5:6).

영혼의 진한 갈증과 목마름은 그로 하여금 탐욕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귄을 가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고통(苦痛)은 육체의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주(主)’를 찾기에 갈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를 찾는 사람들은

오직 ‘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구주 외에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케 할 것이 없음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바닷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겪고 있는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영혼의 곤고함이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그의 몸과 영혼을 돌지 않았습니까(시 42:3, 눅 23:3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께서는 그의 몸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셨으며,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그의 영혼을 두 손으로 곁에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 23:46).

2002년도 제4차 학습 및 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전체 91명(남자 41명, 여자 50명)

“물의 상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의 세례는 물의 씻는 징표를 사용함으로써 죄인이 그 거룩한 이름을 심판이 아니라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E. 클라우니의 ‘교회’ 중에서).

기독교의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례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례에 사용하는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우며, 선함과 인자가 영원토록 무궁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9).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시 135:13).

그러므로 기독교 세례식에서 뿌리는 물은, 크고 두려운 진노 앞에 놓인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선한 양심을 각성시켜서 진정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죄 씻음을 사죄함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효용성을 드러낸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벧전 3:21).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총 91명의 회원·학습 19명(남 7명, 여 12명), 세례 36명(남 16명, 여 20명), 유아세례 19명(남 13명, 여 6명), 그리고 입교 17명(남 5명, 여 12명)이 학습·세례를 받게 된다. 이들은 그 동안 학습·세례공부에 참여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왔다. 이들이 학습·세례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 주일(9월1일) 2002년도 제5차 성찬식 및 전(교)인 가족연합예배

다음 주일에는 2002년도 제5차 성찬식이 시행된다.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에 걸쳐서 시행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서 갚으리다”(시 116:12-13).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또한 다음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전(교)인 가족연합예배주일’이기도 하다. 그 동안 찬양교회는 이 가족연합예배를 통해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직접 가르칠 수 있었는데, 미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연습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더욱 하나님 모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맛보았다. 그러므로 이번 ‘전(교)인 가족연합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세대간의 간격을 뛰어넘어 부모와 자녀가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되기를 바란다.

Lord's Supper

(Psalm 116:12-19)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ward me?
I sha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I shall pay my vows to the LORD, Oh may it be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Psalm 116 is a beautiful song that vividly relates to the Lord's Supper. It's so amazing how this Old Testament passage spiritually connects to the deep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Lord's Supper. Its opening verses bring to our hearts the deep love that this psalmist has for the Lord, "I love the Lord, because He hears my voice and my supplications. Because He has inclined His ear to me, therefore I shall call upon Him as long as I live" (vv. 1-2). This is the confession of our Messiah, His prayer to His Father. On the cross Jesus cried out to His Father, and His Father listened. From the horrible depths of death, God saved Him. In this psalm of personal thanksgiving and praise, the deep meaning of the Lord's Supper is illuminated.

On the day of Passover, Jesus made arrangements for He and His disciples to eat together. That night the Lord's Supper was instituted. Also on that night, Judas betrayed Jesus, Jesus was arrested, and Jesus' disciples abandoned Him. This information really explains the whole story of Psalm 116. Listen to verses 8 and 9, "For You have rescued my soul from death; my eyes from tears, my feet from stumbling. I sha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Amen. God delivered His Son. Indeed, God sent His Son for this night.

In the Lord's Supper, Jesus first took the bread and prayed a thanksgiving.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ward me" (v. 12)? From His body, Jesus saved the whole world, "I sha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I shall pay my vows to the Lord, oh may it be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godly ones" (vv. 13-15). Now, we can remember the Bible verses of 1 Corinthians 11:23-26,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As you come to the Lord's Supper, you can't simply remember what happened-you have to continually praise and proclaim with thanksgiving God's wonderful grace.

The salvation of Israel came at Passover. Our living Lord freed the Israelites and called them to Him as His people. The world's power knelt down to Him. That night, death passed over all who had the lamb's blood on their doorposts. Victory came to God's people. But it wasn't just that night that brought victory. It's not just the past, but the present and eternal salvation that our Creator has designed for us. God is sovereign. Right now, in our age, the end times, is living history. It's an amazing creation right now. The Exodus story is not just for us to remember past

history, it's part of the eternal story of God. When we pray, "Thy kingdom come", we're talking about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here and now. We are getting blessings right now because of the grace of God. The Lamb's blood still effects humanity. Whosoever believes in Him has eternal life. That's why Paul strongly explains to the Corinthian Church the deep meaning of the Lord's Supper. We don't just remember, we have to proclaim His grace until He comes again. When we take the food, the bread and drink, we not only proclaim and rememb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but also we proclaim His second coming (Parousia). We have to emphasize Christ's return with joy and thanksgiving.

The fourth gospel, John, gives us even more details concerning the events prior to the Lord's Supper. John 13:1 says,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 What day is mentioned? Passover day. The same day as the Lord's Supper. From this Supper, Jesus stood up and took off His clothes and placed a towel around Himself. Then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washing His disciples' feet and wiping them dry with the towel He wore. He told them that if He didn't wash their feet, He couldn't relate with them. That's so important! He served each of His disciples. "I shall pay my vows to the Lord, oh may it be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v. 18). His disciples didn't understand. They didn't even know that one of them would betray Him. Yet, Jesus still gave them unconditional love. "In the courts of the Lord's house, in the midst of you, O Jerusalem. Praise the Lord" (v. 19)! At Calvary Mountain, in the midst of Jerusalem, Jesus died and made a new temple. That's the Lord's Supper. Jesus took the cross. He asks His disciples to take eat of His body, which was shed for you, and to take the cup, in which His blood was shed for you. That's the new covenant. We are sitting on the courts of the Lord's house right now. We are standing in the midst of Jerusalem right now. Jesus made everything ready and He asks us now to come to His Table.

On this special day of September 1, 2002, the Lord's Supper is prepared and awaiting your presence. In just a few more days, September 7, 2002, Choong Hyun will be celebrating its 49th anniversary. What a blessing it is for us, God's children, to have this church as a place of worship and fellowship. Truly, let us come together now and partake in the Lord's Supper with soft hearts that love our Lord and look forward to His return. My dear friends, He hears our voices! We have so much to be thankful for, so much to praise Him for, and so much to proclaim in the presence of His people. Come now in remembrance of Christ's life and death, and let us proclaim His second coming. ■

주의 만찬

(시) 116:12~19)



김성국 목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기도

시편 116편은 주의 만찬을 아주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구약의 본문이 주의 만찬의 역사적 배경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전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절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1~2절). 이것은 우리 구주의 고백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죽음의 두려운 깊은 골짜기로부터 그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이 담긴 오늘날의 시편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유월절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게 준비하셨고, 그 밤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밤에 모든 그분을 버렸습시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16편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8절과 9절을 들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은혜

주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떡을 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12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세상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느니라”(13~15절).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11:23~26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밤에 벌여졌던 일들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나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치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계의 권세가 그분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 밤에, 죽음의 어린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뿌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물론 승리를 가져온 그 밤은 단지 그 때에만 국한되는 밤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현재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시대에, 영원토록, 역사 속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

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놀라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양의 피는 여전히 인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의 만찬의 깊은 의미를 강력하게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찬을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우리는 단지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마루사)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해야 합니다.

약속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이 베풀어지기 전의 사건을 보다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주의 만찬과 같은 날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일어나셨고, 그는 겉옷을 벗으셨으며,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대야에 부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 지라”(18절). 그의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이 스승을 배반할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와 전경에서 내가 갚으리다 할렐루야”(19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고,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찢는 자신의 몸을 먹으며,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의 피, 곧 언약의 잔을 마시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궁정의 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의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준비를 하였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식탁으로 나아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초청

2002년 9월 1일, 이 특별한 날에, 주의 만찬은 준비되었고 여러분이 나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2002년 9월 7일이 되면, 총현교회는 설립 4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써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이제 진실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야와 주님의 만찬을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께 한없이 감사해야 하며, 끝없이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

우리는 뒤집어졌습니다

17교구 카자흐스탄 단기선교단

선교현장에 다녀오면 당사자가 은혜받고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리! 선교지에서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웠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성령의 체험으로 우리들을 감격케 하셨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을 하객들은 모르고 마셨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 듯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인 우리 단원들의 처음 모습은 연약하지만 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준비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다. 어린이이처럼 '오직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도착 감사예배를 드렸다. 간단한 식사 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당황해 하며 두려운 마음에 주저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나?', '성도들의 헌금으로 선교한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도 확실히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슨 면목으로 서나?', 모두들 정신이 번쩍 들어 지나가는 카작인에게 훈련한 대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전철까지 끝까지 전도지를 읽고 복음을 받아 들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단원들은 차츰 자신을 갖기 시작했다.

도착한 첫 날 밤부터 성령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 부치셨다. 다대목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주신 말씀에 힘을 받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충만하여 '나가 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이 쉬도록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신 온사대로 다양하게 전도에 임하게 했

다. 저녁 평가회는 하루 중 가장 은혜받은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나무 아래 앉아서 울며 기도한 후에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히 전도할 수 있었다는 고백과, 회의를 느낀 모습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하며 성령을 체험했다는 고백, 환자와 그 가정의 예수를 영접했다는 소식 등을 나누며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며 모두들 감격했고, 매일매일의 평가회를 통해 복음의 전을 수행하고 보충하며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점점 강건해짐을 경험했다. 처음 사역지에서는 '오합지졸' 같았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사이 그리스도의 정예부대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동안 우리들의 생각은 자나 나하 오직 선교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은 가족도, 직장도 다 잊고 온전히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었다. 운전기사(사사)는 우리의 첫 번째 열매였으며 목적이까지 가는 도중 중간중간 노점상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교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성령님의 지시하심만을 바라는 우리 단원들은 그 전달 지도를 보고 사역지를 정하고 떠나곤 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갑자기 바뀐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순종하고 가 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물이 필요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보다 더 귀하고 큰 선물이 어디 있으리! 그들이 작은 물질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정작 영혼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열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역현장에서의 사례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계속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다. 그 선교지에서의 복음의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곳 어디서나 계속해서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

아름다운 땅, 탄자니아

은 필레 (권사, 탄자니아 단기선교단원)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광활한 나라이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의 97%가 가난하며 3%의 부자가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한 끼로 연명하기 위하여 오전에는 농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면서 오후에는 찻가니를 먹는다 고 한다. 그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 길가마다 찻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런 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한 끼의 밥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였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 아까워 각자가 전도자 역할을 했다. 그들도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인 중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했고, 그들이 대답할 때 "부름에 파도자 흥가 마초(눈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저들도 그들 눈빛이 생각난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다. 저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워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보내 주신 것 같다.

도도마라는 지역을 향해 양산한 나무들이 서 있는 광활한 들판을 몇 시간동안 달리노라면 간혹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한가히 걸어가며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때면 마음이 갈급하여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그 넓은 들판 황무지, 종이 한 장 없는 그 곳에 전도지를 나눠주었을 때, 바람에 날리는 전도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내 모습의 차이, 그들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 그들의 평온함과 우리의 욕심, 미움을 생각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나 되돌아보며 안타까웠다. 오 주여 깨닫게 하소서!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문 경 안 (집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단원)

가는 곳마다 최정살로 담을 쳐 놓고 살아가는 빈민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코레아(Corea)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격의 없이 반기는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내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은 예수' 보다는 '예수' 라는 어휘 자체에 습관적으로 익숙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마디로 '옛 사람'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였다.

천연적인 자원이 풍부,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백인들에게 모두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망수수 농장에서 저임금으로 혹사 당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마약, 범죄에 빠져 무위도식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웠는데, 그들에게서 삶에 대한 의식도 도전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신앙생활의 목표도 뚜렷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도 숫자' 보다는 '실질적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선교 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정탐적 사역 성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일일이 요한복음 3:16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였다. 오고 가는 시내 버스에서도, 우체 대학(Uice Univ.)과 아페 대학(Apece Univ.)에 가기도 한 걸음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오전에는 여러 지역을 돌며 축조 전도를, 오후에는 어린이들을 모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어느 곳을 가도 모여들었다. 함께 찬송을 불렀고(한두 번만 하면 금세 찬송과 율동을 따라 하였다), 초롱초롱한 많은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표정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지하게 몰두하였다. 목사님의 열정 기도가 시작되면 까만 어린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였다.

우리는 육신적인 피로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 주셨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일으켜 세게 모든 열방에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땅과는 물로 뿌린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의 열매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려 한다.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게만 느껴진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 여름을 기약해 본다.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박 영 수 (신혼가정부)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30년 동안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아내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며, 믿음의 가정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었듯이 나의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서진이의 태어남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줄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후 저는 하나님 알기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선 부모가 자녀 또한 말씀에 거한 자로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각자하던 경건의 시간을 매일 아침 5시 30분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유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컸습니다. 우선 집중력이 생겨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속도가 붙었고,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아

내가 연구하고 나누니 매일 아침 말씀의 풍성함은 저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충분했습니다. 또 각자 필요로 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상대를 같이 이해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보고 기도하는 영혼의 호흡을 하며 생활하니 직장에서도 활기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 '박 목사'라고 불립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훈련된 주님의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전도복합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죽음에서 가장 큰 수비는 공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만이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전도와 양육이라고 아내의 말을 합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그 영혼이 불쌍하다거나, 믿음 약한 형제 자매를 만나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훈련을 통해 이러한 자아가 깨지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앞에서 기도해 주고 점진주는 아내를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조금 맛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Basic Life(성경 읽기, 기도, 성경 암송, 묵상, 전도, 교제) 생활이 나의 가정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자란 서진이는 말씀을 읽어서 떼지 않으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지저 말하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나라 선교사로 나와 내 아내, 그리고 서진이가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각각 파송된 환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의 가정, 직장,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가정예배

오 제 일 (교사, 신혼가정부)

작년말 우리 부부는 교사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신혼가정부를 위해 봉사하기로 작정하였다. 젊은 부부들과의 만남과 친교시간을 통해서 젊은 분위기를 누릴 수 있었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말씀 공부들을 통해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가정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돌이 합하여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가정은 작은 전국이며 교회라고 했다.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가 없는 가정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다고 하였다. 온 가족이 함께 매일의 가정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야 한다.

먼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은 생명의 양식과 성경적인 윤리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기도훈련을 쌓을 수 있다.

요즈음 그 동안의 내 자신의 가정생활과 부부관계, 자녀들 문제들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구한다.

성도의 교제

황 태 진 (신혼가정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도 음을 임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6).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 이기주의라는 큰 흐름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신문에는 매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들과 시로를 노리는 국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러한 폭력과 이기주의의 시대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라고 하였다.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일주간의 삶을 나누고 있으면 '저 형제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하며 동정감을 느껴 위로해 주고 싶다고도 또 서로의 사정을 알고 견디길 기도하기도 한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그 사정들을 나눌 수 없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소망을 갖고 모이는 우리들은 가족보다 더 다가가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실로 형제·자매이다.

헛되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 안에서 치유받고 가족과 같이 친밀한 교제가 확립되어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늘...라...우...신...주...의...이...를

알파와 오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계 22:12-13).

이사야 41:4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선포하신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임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아래 영원한 것과 무관하다(삼후 1:9).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과 관련짓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위에 삶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은 아무 것도 지속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알파와 오메가란 '영원'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위해 충분하다.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다.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전부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우리에게 오직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알파와 오메가이며 모든 필요에 완전하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한정되며 부분적인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원하며 완전한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마 6:33).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와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라. 그로 하여금 매일 아침의 알파가 되게 하고 매일 밤의 오메가 되게 하라.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라든 큰 일이라든 예수님이 시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가 오메가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나 계획도 의심스러우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다. 그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알파와 오메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다. 그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구역장 영성훈련

안에 거하라 (요 15:7~11)

6교구 : 나광영 목사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 있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며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과실은 바로 이 구원의 열매, 사람의 열매이며 '구하라' 고 한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생의 기쁨이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 의지한다는 것이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 기쁨을 확인했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죄수'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표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 수 없다. 십자가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물질의 열매나 권력의 열매가 아니다. 사랑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이다. 전도의 열매이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맺었던 열매들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랑과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할 뿐 권력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 보면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 '안'과 '불'은 백지장 같은 아주 얇은 차이이지만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이기도 하다. 선교지로 가던 비행기 안을 생각해 보라. 비행기 안은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겨우 유리 하나로 막아 놓은 작은 열차 60도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가? 예수 '불'에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 맺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자. 구역을 위해 기도하며 축조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들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자.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초기 한국교회의 창로로 천송가(천송가1950에 수록되었던 이 천송가는 캐나다 정로회 선교사 구래선(Dr. R. Grieson)이 한국에 정착 천송가로 성전예식을 위해서 작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9년 10이리 월초박사에 의해 성전 천송가로 작사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작곡가는 헨리켄을 올리버 박사로 1832년에 작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의 마지막 성찬잔을 회상해 보면 천송가로 우리는 주님이 그때 하신 마지막 언약을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26장 말씀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1-3절). "도 잔을 가지시 사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27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8절)(4-6절)고 말씀하셨다.

- 1절 : 유월절 때가 이르매 주 필리시탄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중 주께서 떡을 가지시
- 2절 :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사해하시고 몸 가리기는 떡 받아 제자들에게 이로시,
- 3절 : 이것은 내 몸의 화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이라, 인자의 복을 전하며 불 가리키라 하시네.
- 4절 :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 다시 사해하시고 주님의 영혼 뱃터 내 입에 맛을 하시네.
- 5절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회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영광 그대께 모든 것을 부어 주시네.
- 6절 : 이 잔을 입에 대며 주 사망 마시라 하신 그 언약 그 몸 다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시네.

1 : 4절은 남성도고, 2 : 5절은 여성도고, 3 : 6절은 모두 함께 찬송합니다.

(천양원회)

+ 양호실

11교구 임병태 성도(여89세)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데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건강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4교구 이혜선 집사(여45세) 교통사고로 척추·요추 수술 후 장기 입원 중인데,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체력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5교구 설광정 집사(남75세) 최근 두 번째 뇌졸중으로 자택에서 치료 중입니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건강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문주 성도(여31세) 교통사고로 다친던 부위가 많이 회복되어 퇴원 후 물리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마리아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그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자,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안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그 때 마리아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눅 1:26-38). 인간의 평범한 삶에 비추어 보아서 처녀가 낳지 않기를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 역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 주는 비탄과 조롱, 심지어 죽음에 당하는 위험까지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다. 엘리사벳이 이 여인을 향해서 놀라운 간증을 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은 은총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눅 1:46-55). 마리아의 찬가에서 어린 처녀 마리아의 가슴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자기 후손의 비천함,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열 바 후에 그녀의 장차 올 아픔을 속삭이는 것은 경건한 마리아의 종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눅 2:28-35).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경건한 노인들이 전해준 말, 천사들이 아기의 탄생을 노래하며 전한 목자들의 말, 소년 예수께서 친히 어머니를 향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생애는, 그녀가 알 수 없는 장래의 일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또 순간 뛰어뜨게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서 깨닫기를 원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신앙의 태도는 항상 기도와 인내와 믿음 속에서 결여되었습니다.

마리아야말로 어머니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한 여인이었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아들이 순전한 모습을 보았고 천사가 부르짖는 희락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이 주일이 넘도록 자기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가슴 속에 임합니다(골 1:4, 22-4). 성령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쳐진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로서는 아들의 전생애를 쫓아가면서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번뇌를 가슴에 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인간으로는 이 메시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힘과 지식과 지혜로는 깨닫을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죄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그에게서 직접 배우고 그 신앙을 지키며 따라갔습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문수목 ♥ 설분식 부부를 소개합니다



60년대에 부르니 공화국으로 이민 가서 35년 동안 살다가 작년 말에 영구 귀국했습니다. 부르니에서 양계와 자동차업에 종사하면서, 아내의 권사로 교회를 섬기며 믿음생활을 했으나, 남편은 농사 일 등으로 바빠 마음은 있어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경기도 광주에서 사는데, 오래 전부터 알았던 천주교의 권사님을 만나 전도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녔

까 생각하여 천주교회에는 그저 한 번 와 볼 작정이었지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구역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구역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에도 연명복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배우는 성경 말씀도 꼭꼭 잘 들어오고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인들의 봉사와 헌원된 모습에 호감이 있습니다. 권사로 봉사했지만 외국이다보니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한승경 통신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선 물

유치부 열매12만 박선우 아빠

류 재 림 (소년부 전라9만)

지난 7월 17일은 단순한 제헌절 이상의 의미를 갖는, 우리 가족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날이었다. 내가 유치부 일일 교사를 한 날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저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유치부 일일 교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나의 지시를 따르는 아이들을 보니까 절로 힘이 났다. 열매12만은 정열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담임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4명의 남자아이와 6명의 여자아이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 하였다. 제복식에서는 예언자의 옷이 몸에 다 찼었다. 그렇지만 축축한 옷을 입고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끝까지 지시를 잘 따랐고,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모두들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며 차례를 지켰다. 세준이가 광현에게 밀려 넘어져 잠시 울었지만 일으켜 주자 바로 울음을 그쳤다. 정말 고마웠다. 끝까지 다치지 않고 개인별로 화장을 갖다가도 바로 돌아와 정말 자유롭게 규율을 잘 따라주었던 아이들이 정말 고맙고 대견스럽다. 각 코너를 담당하신 선생님들은 모두 신앙심이 깊으신 것 같았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으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각 단계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과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코너를 진행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유치부 학부모님들도 계셨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았다.



앞으로 정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항상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앞으로 정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마음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노력할 것이다. 항상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이다.
우리는 기도의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믿 음

김 진 아 (소년부 전라9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진리의 생

마가복음(Mark)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셨던 이유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께서, 진정한 메시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완수를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음부름을 치면서 인기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분주한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경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중하여 감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모습은 가깝게 다루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종로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려고 기록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종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여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종은 말보다 손종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는 예수의 말씀보다는 사건을 많이 기록함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마가복음의 특성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마가가 행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 사실은 신교여행에서 급하게 예수실현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말만 하고 이것저것 팔개 대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행동은 싫고 좋은 것을 분명하게 그의 삶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므로(삿 1:19, 21, 27-36) 마침내 적약에 빠지고 맙니다. 자연히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인과의 통혼까지 용납하고 맙니다(삿 3:6).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삿 2:10b).

한 세대가 지난 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니다(삿 2:11). 이처럼 이스라엘은 곧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신 6:5, 출 20:5).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알 수 없기에 약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인간은 바른 말씀을 교육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도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의 악순환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 되풀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함과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음심을 멸시하는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범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수록, 더욱더 경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일에도 지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리나니"(빌 1:20).

(권형기 기자)

교회소식 / 새가족

모임

- [illegible]

2. 최진모 타고목사

3. 신석원 타고집사
신용환 과대안수집사의 부친,
7교구 장미2구역 / 17일 별세, 19일 장례
4. 하광순 집사
권인규 성도 모친, 이영희 집사의 시모, 2교구 선포1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5. 김창한 성도
유원호 권사의 남편, 17교구 수지3구역 / 20일 별세, 23일 장례

월	일		
		I	
9	1	고재승	김
	8	김은호	최
	15	한송규	박
	22	이종섭	박
	29	이병욱	이

수익 증가 및 손실 감소에 따른 기대 효과

월	일	주말 예배 (강좌)					찬양 예배 (전수습자)	수도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9	8	고재승	김영웅	최지훈	신상조	박승근	신상철	석병선	
	1	김동호	최대희	이종현	이종식	이창원	이창준	김경자	
	15	한승규	정장길	정장길	김태두	노영남	송두섭	박승금	
	22	이범립	변영익	최광민	전홍술	김갑형	황기용	김진오	
	29	이명옥	이형수	노하린	한윤성	김창우	장기호	최화자	

이번호 세번기도한 다음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9/1(주일)
설교자	이성욱	김용덕	노경묵	나팔영	정진호	박준영	김영훈
기도자	최대원	문효식	정운환	박종태	추병창	김경연	조옥자

결론

1. 임기준 군(임영조 집사, 김경희 권사의 아들, 17교구)과 장정은 양(이영희 집사의 딸, 신반포교회) / 31일(토) 15:00, 국제전자센터 문화관 13층 ☎3465-0011

직원모집

출현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미화원(예)
2. 자 격 만 50세 미만의 본 교회 세례교인
3. 문 의 ☎ 552-8200
4.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
5. 제 출 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헌교회

성교 수식

인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사람들 선교단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13교구, 연합 선교단,
몽골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소망부, 12교구 선교단, 카자흐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9교구 선교단,
몰도바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5교구 선교단,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4교구 선교단만이 재난주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단을 통해 선교회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나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자

복사위유희 수재민 구형

봉사위원회는 경상남북도의 수해지구 중 큰 피해를 입은 함안군 우성교회, 김해군 우로교회에 찾아가 직접적인 수해 구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8월 29일(목) 봉사위원회 최희만 장로와 재단·교수 봉사위원들이 참여하여 생명의 물에 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로 달려가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을 배분하게 된다.

١١١

매일 간		
구분	시 간	장 소
주말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주일 화재 예방을 위해) 오후 1:00 ~ 1:45 (주일학교)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 양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배	1:30 ~ 11:00 오후 7:30	본 당
금 요 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버스: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버스: 금요집회 후 분당 앞 출발

가도원 차량 운행 - 월 목 오전 10:00 / 월 목 토 오후 7:00 (분당역에서 앞 출발)

첨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리조 | | 부록 | | | |
|------|---------|------|---------|------|-----|
| 김지현 | 김은호 | 노영현 | 오진국 | 이병학 | 이복다 |
| 선유원정 | 성영구(부정) | 양희서 | 172구 | 정현민 | 김동하 |
| | | | | 구국현 | 차병준 |
| 신유원정 | 최대원 | 엄희선 | 강모용 | 오경현 | 김경태 |
| 선유원정 | 봉사원(부정) | 장근호 | 구재환 | 서광진 | 정혜성 |
| | | | | 이승기 | 박민기 |
| 이 훈 | 남승우 | 정운석 | 김영진 | 류병복 | 노경호 |
| 선유원정 | 35구 | 35구 | 문근구 | 이종현 | 김영훈 |
| | | | 부유원정 | 여국 | 35구 |
| 조인제 | 김종구 | 최무길 | 김진채 | 이창호 | 이유진 |
| 부유원정 | | 조국현 | 김현우 | 김교성 | 송길환 |
| | | | | 112구 | 42구 |
| 차진숙 | 박영식 | 김광남 | 이종식 | 윤성철 | 방종연 |
| 영양원정 | | 재유원정 | 기국현 | 정찬 | 강유덕 |
| | | | | 62구 | 72구 |
| 이하영 | 이병욱 | 안종욱 | 임무진 | 이준성 | 김광한 |
| 선유원정 | | 기도원정 | 이종섭 | 142구 | 왕진환 |
| | | | 제2교구원정 | 김익환 | 김정수 |
| 최기홍 | 이갑재 | 전홍훈 | 전홍열 | 이경우 | |
| 성유원정 | 152구 | 영양원정 | 전진호(부정) | | |
| 김단우 | 황영일 | 한승규 | 김경수 | 정홍식 | |
| 142구 | 전국현 | 전국현 | 전국현 | 전국현 | |
| 김환기 | 원윤철 | 이형수 | 이영현 | 황의만 | |
| 152구 | 152구 | 영양원정 | 영양원정 | 35구 | |
| 김구형 | 최윤덕 | 이계인 | 박덕양 | 이태식 | |
| 교구부정 | | | | 142구 | |
| 정태호 | 박용근 | 권명옥 | 조종환 | 배준식 | |
| 학유원정 | | | 영양원정 | 전신원정 | |
| 김영당 | 이신호 | 박찬섭 | 최치윤 | 노영현 | |
| 영유원정 | | | 배재원 | 신삼원정 | |
| 박철구 | 정정식 | 신상수 | 강재형 | 교재숙 | |
| 영유원정 | 초유원정 | 영유원정 | 영유원정 | 영유원정 | |
| 김영은 | | | | | |

새. 가. 조. 울. 화. 역. 하.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지
568	김경옥	1	장년3부	양산초(3)	574	이희경	19	대학부	최오일(15)
569	민한기	1	청년2부	한재초(1)	575	조진우	19	대학부	최수자(2)
570	홍세림	1	중등2부	한재초(1)	576	황준우	19	청년1부	
571	강동명	17	장년3부		577	이동환	19	청년1부	조민규(15)
572	이연선	17	청년2부	이희연(17)	578	최희희	19	청년1부	이재현(16)
573	주희애	10	청년1부	주희애(9/11)	579	김지혜	10	청년1부	